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3년 3월 1일(수) 총 2매	
담당 부서	글로벌도시 기획과	담당자	• 글로벌전략팀장 이재경 ☎440-3466 • 담당자 최성현 ☎440-3467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12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역사회, 재외동포청 유치 분위기 조성에 본격 나서 **-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3.1절 기념예배에서 인천 유치지지 선언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염원하는 지역사회의 지지 분위기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진유신 목사)는 미추홀구 도화동 하늘꿈교회에서 열린 3.1절 기념 예배에서 약 3,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를 선언했다.

인천지역 4천여 개 교회와 성도 약 100만 명이 소속돼 있는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는 3.1 운동 104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재외동포청의 최적지는 인천이라고 지지의 뜻을 모았다.

이들은 지지 선언을 통해 인천은 한국 최초의 이민자가 출발한 역사성을 간직한 곳이고,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한 접근성과 편리성, 이

미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춘 친화적 기반시설 등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들도 가장 선호하는 지역인 만큼 재외동포청은 당연히 인천에 유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윤기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지난 27일 재외동포청 신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인천지역사회에서 인천 유치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재외동포청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사진>

